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이계승
개신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f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the Aging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Gye-Seung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노후를 조명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950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 중증장애인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요인인 장애유형과, 도움필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족 및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자가 보다는 자가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가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증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ging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experiencing relative alienation and deprivation in an aging society to find ways to make them happy and economically stable. This study identifie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using the ecosystem perspective.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A total of 950 samples were used from the eighth wav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As a result, age, level of education, employment,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elf-esteem, income, homeowner, and non-beneficiaries affected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These findings hav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concerned with improving the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Keywords : Determinants, Economic preparation for the aging, Ecosystem perspective, Logistic regression,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1. 서론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산업 및 사회분야에 다양한 역동과 변화를 경험하

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이라 불릴 만큼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해왔으며, 경제와 산업측면에서는 실버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인들의 삶과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Corresponding Author : Gye-Seung Lee (Reformed Graduate Univ.)

Tel: +82-10-5893-2420 email: sevengold@naver.com

Received February 13, 2018

Revised March 22, 2018

Accepted May 4, 2018

Published May 31, 2018

있다. 더불어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4차 산업의 발달과 함께 또 한 번의 시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전반에 노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지만, 일각에선 무관심과 상대적 소외감을 경험하는 노인집단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을 우리는 고령화된 장애인이라 부르는데, 고령화된 장애인이란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노년기에 접어든 장애인을 말한다[1,2]. 그동안 장애인은 조기노화와 사망으로 인해 그 수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의학의 발전과 보건환경의 개선 및 재활기술의 발달로 장애인의 생존률과 수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3]. 게다가 장애인의 노인증가율은 전체 노인증가율에 비해 2~3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4] 장애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제도과 사회적 관심이 환기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노후에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무엇보다 이에 대한 소득보장과 경제적 대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5], 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은 과거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나[6]. 장애노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이나 방향성은 부재한 상황이다[4]. 더욱이 중증 장애인들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미참여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중증장애인의 노후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장애인의 노후준비는 장애인학계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이에 대한 연구들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7-10]. 이 연구들은 중장년 혹은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당시의 삶의 만족도와 고령이 된 이후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보다 만족한 삶을 위해서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 집을 소유하며, 유배우자가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11-13]. 그러나 장애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장애정도 내지는 도움필요 정도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는 중증 장애인이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치 않은 경증 장애인들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장애등급이 장애유형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경증과 중증 장애인 간에는 문제와 욕구가 상이해[14] 따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김승완과 전지혜(2016)는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15]. 그러나 이 연구는 중고령 장애여성만을 고려한 연구로 젊은 계층의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의 동향을 살펴보기 못한 한계를 지닌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단기적 노후준비로는 노후 소득보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16] 젊은 층의 장애인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기 위해선 남성과 여성 장애인을 동시에 헤아릴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중 자산과 부채는 중요한 요인인데[17]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를 함께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증장애인들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개인, 장애, 가족 및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중증 장애인들이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천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검토

2.1 중증 장애인의 고령화와 노후준비

경제적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한 개인은 전 생애과정동안의 소득을 소비한다고 가정한다[18]. 즉, 일반적으로 성인기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성인기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돈을 갚는 동시에 노후를 대비하며, 노년기에는 모은 돈을 사용한다[16].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은 성인기에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가 어렵고,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더라도 저임금상태에 놓여있어[19] 부모로부터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할 가능

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는 장애의 악화와 기능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 시켜[20], 의료비와 생활비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경제적 가용자원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은 결국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그간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장애인연금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낮은 급여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소득보장이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다[21]. 이는 중증장애인의 노후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2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중증장애인 역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개인적 요인, 장애요인, 가족 및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 요인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자존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이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15].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유무의 경우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3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혼 장애인이 이혼이나 사별장애인 보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 베이비부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상기된 연구결과와 일치하나[16, 22], 특이점으로 성별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의 노후준비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22,23].

다음으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에서는 장애정도, 장애유형, 도움필요정도로 살펴보았다. 여성장애인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살펴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장애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장애정도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이 인식하는 도움필요정도로 살펴볼 것이다. 도움필요정도는 장애인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도움필요정도를 말한다. 전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낄수록 노후준비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3,24]. 장애유형은 장애인의 중요한 특성중 하나로서 어떠한 장애유형을 지니는가에 따라 노후준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행연구들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제시되지 못했다[11,13,24].

마지막으로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특성이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가구의 소득과 주거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는 선행연구들에서 주요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비자가 보다는 자가자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보다는 비수급가구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13,24,25]. 이외에 가구의 자산과 부채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이자 저축, 주식 및 투자신탁보유와 같은 가구의 자산은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부채의 경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7]. 또한, 장애가구원 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추가비용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은 가구일수록 지출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도움제공자유무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도움제공자가 없는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에 비해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는 반면[24],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연구결과도 있다[12].

이상으로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2015)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노후준비에

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만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950명이다. 연령제한의 이유는 노후준비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시기가 종료된 후인 노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3.2 변수구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후준비여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해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지정해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이론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요인, 장애요인, 가족 및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유무, 건강상태, 자존감이다. 성별에서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지정하였으며 연령은 만 연령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무학은 1, 초졸은 2, 중졸은 3, 고졸은 4, 대졸이상은 5로 부호화하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유무로 파악하였으며 배우자유는 1, 배우자무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경제활동은 취업여부로 파악하였으며, 취업은 1, 미취업은 0으로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건강상태는 전반적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을 활용해 매우 좋지 않다는 1, 좋지 않은 편이다는 2, 좋은 편이다는 3, 매우 좋다는 4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과 도움필요정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 신체내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를 더미화하여 분석하였다. 도움필요정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필요 없다가 1, 필요 없다는 2, 약간 필요하다는 3, 매우필요하다는 4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자산, 부채, 사회경제적지위, 주거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여부, 장애가구원수, 도움제공자유무이다. 가구소득은 연평균가구균등화소득을 사용하였으며, 자산과 부채는 응답자가 기입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4점 척도로 하층이 1, 중하층이 2, 중상층이 3, 상층이 4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주거형태는 자가는 1, 비자가는 0으로 부호화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여부는 수급가구는 1, 비수급가구는 0으로 부호화 하였다. 장애가구원수는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수를 사용하였으며, 도움제공자 유무는 도움제공자 유가 1, 도움제공자 무를 0으로 더미처리 하였다.

3.3 분석방법

중증장애인의 노후준비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중증장애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노후준비 집단과 비노후준비집단으로 구분해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먼저 개인적 요인에서 성별을 살펴보면 노후준비집단에서 남성은 84명(8.8%), 여성은 41명(4.3%)으로 나타났다. 비노후준비집단에서 남성은 505명(53.2%), 여성은 320명(33.7%)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노후준비집단의 평균연령이 48.88세, 비노후준비집단이 49.45세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노후준비집단에서는 고졸이상의 중증장애인이 93명(8.7%)으로 중졸이하의 장애인 42명(3.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노후준비집단에서는 중졸이하의 중증장애인이(58.4%) 고졸이상의 중증장애인(38.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우자유무의 경우, 노후준비집단에서 유배우자가 81명(8.5%)으로 무배우자(44명, 4.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노후준비집단에서는 무배우자(522명, 54.9%)가 유배우자(303명, 31.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유무의 경우에도 노후준비집단과 비노후준비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집단에서는 취업한 장애인이 93명(9.8%), 미취업장애인이 32명(3.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노후준비집단에서는 미취업장애인이 657명(69.2%)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건강상태의 경우, 노후준비집단의 평균이 2.58로 비노후준비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도 노후준비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요인 중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두 집단

Table 1. Description of the variable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Economic preparations for the aging		χ^2 / t
		Yes	No	
		N(%)/ Mean(SD)	N(%)/ Mean(SD)	
Gender	Male	84(8.8)	505(53.2)	1.652
	Female	41(4.3)	320(33.7)	
Age		48.88(7.976)	49.45(7.555)	-1.027
Education	Indeucation	7(0.7)	139(14.6)	29.496 ***
	Elementary school	14(1.5)	162(17.1)	
	Middle school	21(2.2)	159(16.7)	
	High school	62(6.5)	305(32.1)	
	College and over	21(2.2)	60(6.3)	
Marital status	Married or cohabit	81(8.5)	303(31.9)	35.523 ***
	Single or separation or divorce or bereavement	44(4.6)	522(54.9)	
Employment	Yes	93(9.8)	168(17.7)	159.074 ***
	No	32(3.4)	657(69.2)	
Current health		2.58(607)	2.19(.666)	8.246 ***
Self-esteem		2.4899(.55235)	2.0648(.50998)	10.811 ***
Types of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y	69(7.3)	415(43.7)	10.582 *
	Sensory disability	28(2.9)	137(14.4)	
	Mental disorder	15(1.6)	203(21.4)	
	Internal impairments	13(1.4)	70(7.4)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2.25	3.04	-12.039 ***
Total income		2333.5212(1836.65651)	1513.5904(1174.91943)	6.687 ***
Property		12342.54(35431.678)	4994.24(11109.574)	3.290 **
Debt		2385.58(6069.559)	998.11(4636.937)	3.337 **
SES	Lower class	40(4.2)	647(68.1)	124.320 ***
	Lower-middle class	77(8.1)	171(18.0)	
	Upper-middle class	7(0.7)	5(0.5)	
	Upper class	1(0.1)	2(0.2)	
Self homeownership	Yes	75(7.9)	233(24.5)	49.969 ***
	No	50(5.3)	592(62.3)	
Receiving of basic living assurance benefits	Yes	12(1.3)	491(51.7)	108.562 ***
	No	113(11.9)	334(35.2)	
Number of disability people		1.26(.601)	1.20(.451)	1.413
Help providers	Yes	47(4.9)	438(46.1)	10.424 **
	No	78(8.2)	387(40.7)	

Tests for group differences are t-test and Pearson χ^2

*** p<.001 ** p<.01 * p<.05

간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집단에서는 신체장애(7.3%)가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감각장애(2.9%), 정신장애(1.6%), 내부장애(1.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후준비집단 역시 신체장애(43.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신장애(21.4%), 감각장애(14.4%), 내부장애(7.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구 중 신체장애인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면 신체장애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정신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다는 결과는 향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움필요정도의 경우 노후준비집단의 평균이 2.25, 비노후준비집단의 평균이 3.04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노후준비집단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 및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의 경우 노후준비집단의 연평균소득은 약 2333만원으로 비노후준비집단의 연평균소득 약 1513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산과 부채 역시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변인 모두 노후준비집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후준비집단과 비노후준비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집단에서는 중하층(8.1%)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노후준비집단에서는 하층(68.1%)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택소유의 경우 노후준비집단에서는 자가(7.5%)가 비자가(5.3%)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노후준비집단에서는 비자가(62.3%)가 자가(24.5%)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기초수급의 경우, 노후준비집단과 비노후준비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집단에서는 비수급자(11.9%)가 수급자(1.3%)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노후준비집단에서는 수급자(51.7%)가 비수급자(35.2%)보다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가구원의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제공자유무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집단에서는 도움제공자가 없는 장애인(8.2%)이 있는 장애인(4.9%)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노후준비집단의 경우 도움제공자가 있는 장애인(46.1%)이 없는 장애인(40.7%)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4.2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먼저 개인적 요인에서는 연령($b=.043, p<.05$), 교육수준($b=.216, p<.1$), 취업유무($b=-1.400, p<.001$), 자존감($b=.773,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으며, 교육수준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의 경우 비취업자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의 경우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성별, 배우자유무, 현재의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다음으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유형과 도움필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간에는 장애유형과 도

Table 2. Logistic model of economic preparations for the aging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Factor	Variables	B	S.E	Wals	Exp(B)
Personal factor	Female(ref=Male)	.142	.279	.261	1.153
	Age	.043*	.019	4.905	1.044
	Level of education	.216 ⁺	.126	2.934	1.241
	Other(ref=Married or cohabit)	-.058	.286	.040	.944
	Unemployment(ref=Employment)	-1.400***	.290	23.261	.247
	Current health	.083	.223	.138	1.086
	Self-esteem	.773**	.225	9.189	2.167
Disability factor	Sensory disability	-.140	.329	.182	.869
	Mental disorder	-.121	.392	.096	.886
	Internal impairments	-.072	.452	.026	.930
	(ref=Physical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188	.178	1.111	.829
Family and social factor	Total income(Equivalency scale)	.000***	.000	13.252	1.000
	Property	.000	.000	.094	1.000
	Debt	.000	.000	.005	1.000
	SES	.743**	.245	9.221	2.103
	Non-homeowner(ref=homeowner)	-.492 ⁺	.268	3.375	.611
	Non-beneficiaries(ref=Beneficiaries)	1.035**	.385	7.234	2.814
	Number of disability people	-.117	.280	.174	.890
Help providers No(ref=Yes)	-.297	.344	.745	.743	
	Constant	-7.172			
	Chi-square	269.266***			
	-2Log Likelihood	469.136			
	Peudo R ² (Nagelkerke)	.457			

⁺p<.10 ***p<.001 **p<.01 *p<.05

움필요정도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균등화지수($b=.000, p<.00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b=.743, p<.01$), 주거형태($b=-.492, p<.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여부($b=1.03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균등화지수 즉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서는 비자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여부의 경우 비수급자가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 자료를 활용하여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개인적 요인, 장애요인, 가족 및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자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상태가 비취업상태보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과 취업유무 및 자존감에 대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11,15,24,25]. 본 연구의 결과에서 중증장애인 역시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상태일수록 그리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해 역 상황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령의 경우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준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거나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15]. 이와 같은 결과는 경증과 중증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분석한 중증장애인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경증과 중증장애인을 같이 분석한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용이하고 건강한 상태인 경증장애인이 소득을 창출해 노후준비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어려워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신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에 따른 대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젊은 시절부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노후대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노령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소비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는 더욱더 어려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요인에서 장애유형과 도움필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장애유형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이다[11,15,24]. 도움필요정도의 경우, 도움이 필요 없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24]와는 다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된 결과이다[11,12,15]. 도움이 필요 없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결국 장애가 경미한 경증장애인이 포함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높아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장애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즉, 장애의 특성으로 노후준비의 유무가 드러나기 보다는 다른 소인적 특성이나 가족 및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노후준비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의료적 관점에서는 장애자체를 문제로 규정하며 그로인해 장애인들의 삶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우리사회 역시 곳곳에 그러한 인식이 뿌리 깊게 배어있지만,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장애자체가 문제로 규

정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준비에 대해 장애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개인적 또는 가족 및 사회적 요인에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비자가보다는 자가가구, 수급가구보다는 비수급가구가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11,12,15,24,25].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경증과 중증장애인을 같이 살펴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양호할 때 노후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중증장애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장애인의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노후에 경제적 박탈과 생계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또는 계층별 적합한 노후대비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중증장애인의 연령과 계층에 적합하도록 변경해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보다 쉽게 받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조기구를 개발해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건강과 정서적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차원에서 조사된 연구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H. T. Yang, W. W. Shin,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52, pp. 255-278, 2011.

- [2] C. W. Kim,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and Welfare Needs of Elders with Disability and Social Care Service Orientations",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no. 46, pp. 164-200, 2015.
- [3] S. H. Kim, S. H. Lee, S. H. Noh, I. G. Chung, "A Study on Service Linkage Plan for the Disabled Elderly Peopl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 [4] J. H. Hwang, "Aging of Disabled People",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5*, pp. 216-22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 [5] G. S. Lee, "A Study on Economic Activity Change Class and the Related Predictor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vol. 26, no. 3, pp. 31-64, 2016.
- [6] H. J. Park, D. Y. Lee, S. W. Lee, "A Study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Needs and Attitudes among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13, no. 2, pp. 101-127, 2003.
- [7] J. Y. Park, "A Study on Influence of the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Wom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Moderation Effect of Preparation for the Later Life Factor",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7, no. 4, pp. 53-77, 2013.
- [8] S. H. Lee, Y. J. Kim, "Influence of the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Disabled for Old Age on Their Satisfaction of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 579-586,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6.579>
- [9] J. Y. Jin, K. S. Ha, "A Study on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d on the Satisfaction of th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45-57,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2.45>
- [10] Y. S. Park, "A Longitudinal Study of Status Change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Socio-economic Posit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no. 52, pp. 45-82, 2016.
DOI: <http://doi.org/G704-SER00010228.2016..52.003>
- [11] J. M. Kim, Y. J. Lee,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for the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0, pp. 6046-6055,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10.6046>
- [12] H. Y. Jun, J. H. Moon, E. K. Shin,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 of Disabled Baby Boomers",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vol. 11, pp. 63-94, 2014.
- [13] J. H. Im, M. J. Kwon, "Visually Impaired People Aged 60 or More and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 Preparations for Senior Year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32, no. 4, pp. 93-115, 2016.
- [14] A. K. Han, H. M. Yoon,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of Women with Differing Degree of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vol. 22, no. 3,

pp. 125-153, 2012.

DOI: <https://doi.org/10.15707/disem.2012.22.3.006>

- [15] S. W. Kim, J. H. Jeon, "The Effects of Disability Severity on Economic Participation for Aging: Focusing on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90, no. 1, pp. 131-162, 2016. DOI: <http://doi.org/G704-001827.2016.90.1.002>
- [16] C. J. Park, "Type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by Ag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4, no. 4, pp. 139-166, 2008.
- [17] C. J. Park, "Factors Affecting Private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Baby Boomers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7, no. 4, pp. 327-351, 2011.
- [18] A. Ando,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no. 1, pp. 55-84, 1963.
- [19] M. Priestley, *Disability: A Life Course Approach*, p.15-80, Polity Press: Oxford, 2003.
- [20] L. M. Verbrugge, L. S. Yang,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vol. 12, no. 4, pp. 253-267, 2002. DOI: <https://doi.org/10.1177/104420730201200405>
- [21] S. Y. Yoon, "A Comparative study on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non-contributory income replacement benefits in quasi-countries based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classific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3, no. 2, pp. 159-188, 2013.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3.33.2.159>
- [22] C. H. Park,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0, no. 3, pp. 275-297, 2008. DOI: <https://doi.org/10.20970/kasw.2008.60.3.012>
- [23] J. Noone, F. Alpass, C. Stephens, "Do men and women differ in their retirement planning? Testing an theoretical model of gendered pathways to retirement preparation." *Research on Aging*, vol. 32, no. 6, pp. 715-738, 2010. DOI: <https://doi.org/10.1177/0164027510383531>
- [24] J. A. Cho, "A study on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disabled of old age." *Fall Conference scheduled of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and DB Conference of Financial welfare*, pp. 255-275, December, 2013.
- [25] Y. K. Yuh, S. A. DeVaney, "Determinants of couples'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fun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7, pp. 31-38, 1996.

이 계 승(Gye-Seung Lee)

[정회원]



- 2010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6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9월 ~ 2017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2017년 8월 ~ 현재 : 개신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장애인, 다문화, 중독,